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09-26(통권 355호)
2009.6.26.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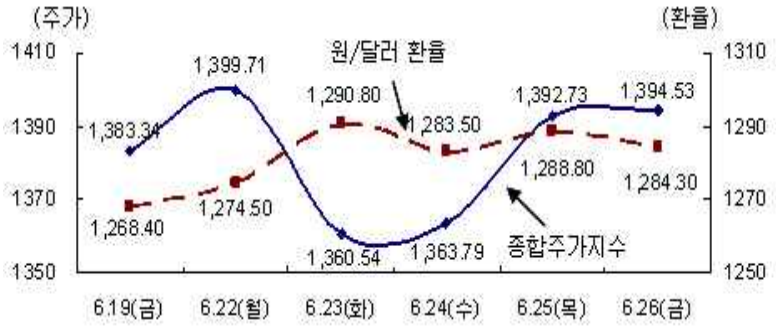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9~6.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 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과제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일중 변동폭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평균이 5.2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1.1원으로 여섯 배 확대되었다. 또한 월중 고점과 저점과의 차이인 월중 변동폭 평균도 같은 기간 28.1원에서 167.4원으로 여섯 배 커졌다.**

(원/달러 급등락의 배경) 환율의 변동폭 확대 원인은 크게 현상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상적 요인으로는 **첫째,** 경상수지의 변동폭 확대다. 경상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11.4억 달러에서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 평균 30.2억 달러로 약 세 배 증가했다. **둘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입의 폭이 확대되었다.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포함한 자본수지의 경우, 전월대비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18.2억 달러에서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 86.6억 달러로 약 다섯 배 증가했다. **셋째,** 수출입 기업들의 환헤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낼 때 수출 기업들은 선물환 매도를 축소하고 수입 기업들은 선물환 매수를 증대함에 따라 달러 수요를 가속화시켰다.

구조적 요인에서 보면, **첫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OECD 데이터로 추정하면, 2007년 기준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90.4%로 미국 29.3%, 일본 33.5%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둘째,** 국내 외환시장이 협소하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일일 외환거래량은 2007년 4월 기준 일평균 334억 달러로 세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국내 GDP는 2007년 기준 14위인 것에 비하면, 외환거래량은 18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34.1%이고 미국은 16.6%, 일본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이 2008년 3/4분기 81.5억 달러에서 2009년 1/4분기 46.6억 달러로 평균 거래량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달러 수요 및 공급량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셋째,** 외환보유고 완충 역할이 미흡하다. 유동외채와 3개월 수입금액을 더한 기준으로 볼 때, 2008년말 외환보유고는 약 800억 달러, 2009년 1/4분기 외환보유고로는 약 500억 달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무역 결제 통화에 있어 달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 수출 결제 통화 중 달러화 비중은 2008년 기준 81.6%이고 수입 결제 통화 중에서는 2008년 82.0%를 기록하고 있다.

(시사점 및 과제) 2009년 6월 25일 현재 환율은 1,288.8원으로 최근 9개월 간 월중 변동폭 평균이 167.4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환율은 앞으로 최저 1,100원, 최고 1,400원대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는 기업의 환리스크를 늘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의 기준 수립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향후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증가에 의한 안정적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외국인 장기투자 유도, 수출입 결제 다변화, 국내 교역 규모 확대에 맞는 외환보유고 확충, 통화스왑 유지 및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시사점 >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특징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 · 일중 변동폭 평균은 2000~2008년 8월까지 5.2원, 2008년 9월 2009년 5월까지 평균은 31.1원으로 여섯 배 커짐 · 월중 고점과 저점과의 차이인 월중 변동폭의 평균도 같은 기간 28.1원에서 167.4원으로 여섯 배 확대

원/달러 환율 급등락의 배경

현상적 요인	- 경상수지 변동폭 확대 · 경상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11.4억 달러,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는 30.2억 달러 세 배 증가 -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폭 확대 · 자본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18.2억 달러,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 86.6억 달러 약 다섯 배 증가 - 기업들의 환헤지 쏠림 현상 · 2008년 4/4분기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낼 때 수출 기업들은 선물환 매도를 축소, 수입 기업들은 선물환 매수를 증대
구조적 요인	-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 OECD 데이터로 추정한 2007년 기준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90.4%로 미국 29.3%, 일본 33.5%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음 - 협소한 국내 외환시장 · BIS에 따르면 GDP 비중은 세계 14위이나 일일 외환거래량의 세계거래 비중이 0.8%로 18위. 영국 34.1%, 일본 6.0% - 외환보유고 완충 역할 미흡 · 유동외채와 3개월 수입금액을 더한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1/4분기 외환보유액 대비 약 500억 달러 부족 - 무역 결제 통화의 높은 달러 의존 · 수출 결제 통화 중 달러화 비중은 81.6%, 수입 결제 통화에서는 2008년 82.0%를 기록

대응 과제

-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 첫째, 수출 증가에 의한 안정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 유지
  · 둘째,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 외국인 장기투자 유인책 마련
  · 셋째, 달러에 의한 변동폭을 축소하도록 수출입 결제 통화 다변화
  · 넷째, 위기시 달러 이탈 방지를 위해 외화 장기조달 노력 확대
  · 다섯째, 국내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외환수요 필요분 증가만큼 외환보유고 확충
  · 여섯째, 달러화, 엔화, 위안화 통화 스왑 유지 및 확대

1. 최근 원화 환율 변화의 특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 심화

-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리먼 사태 이전 9월 12일 1,109원에서 급등세로 전환되며 2009년 3월 초 1,570원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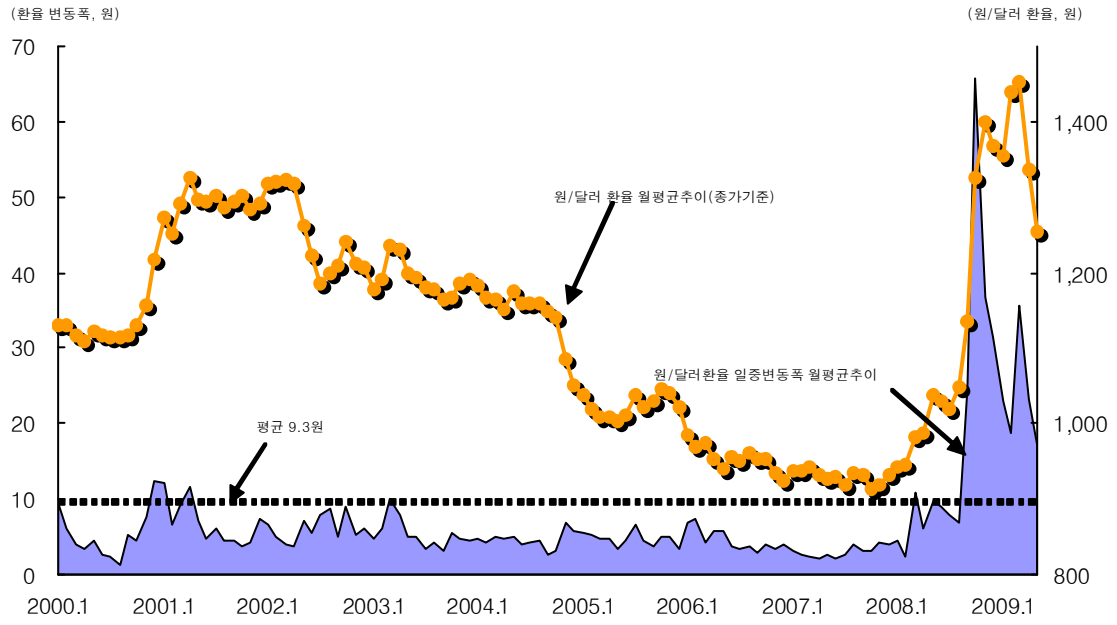
· 그러나, 3월말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며 6월 3일 1,233.2원까지 하락

-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이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평균에 비해 크게 확대

·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5.2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31.1원으로 약 여섯 배나 커짐

· 월중 고점과 저점과의 차이인 월중 변동폭 평균을 살펴볼 때, 월중 변동폭 평균은 2000~2008년 8월까지 28.1원에서 2008년 9월부터 9개월간은 167.4원으로 약 여섯 배 크게 나타남

< 원/달러 환율 및 일중 변동폭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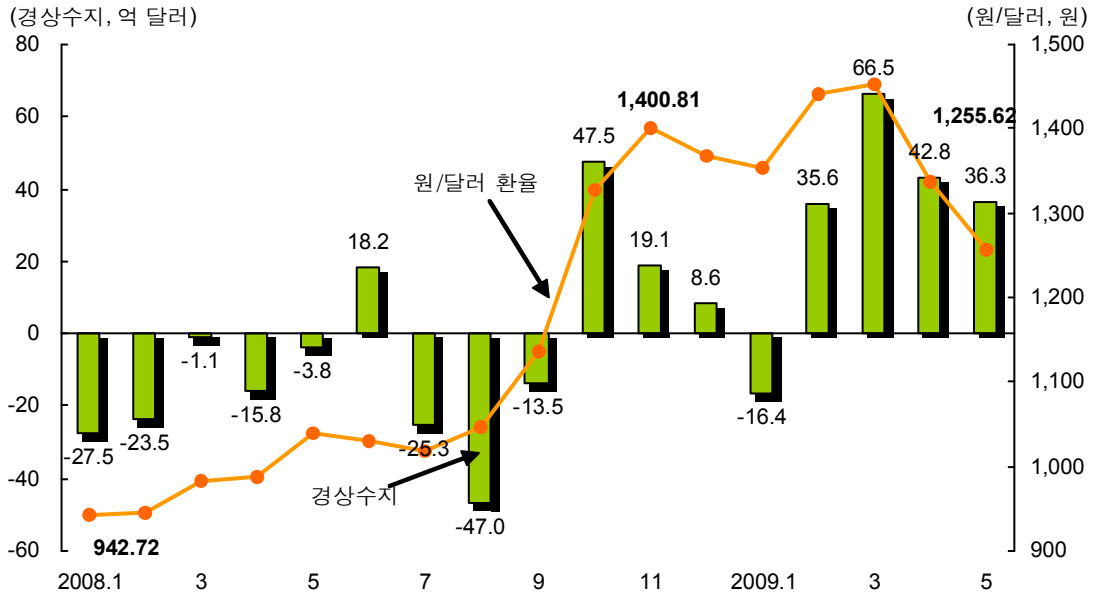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급등락의 배경

1) 현상적 원인

○ 경상수지의 흑·적자 전환폭 확대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 및 흑자폭 확대로 인해 달러 공급이 크게 변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을 살펴보면,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11.4억 달러에서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는 30.2억 달러로 약 세 배 증가
  - 2008년에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월 942원에서 11월에 1,400원까지 급등
  - 반면, 2009년에 들어 3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1,453원까지 상승한 후, 5월 1,255원까지 하락

<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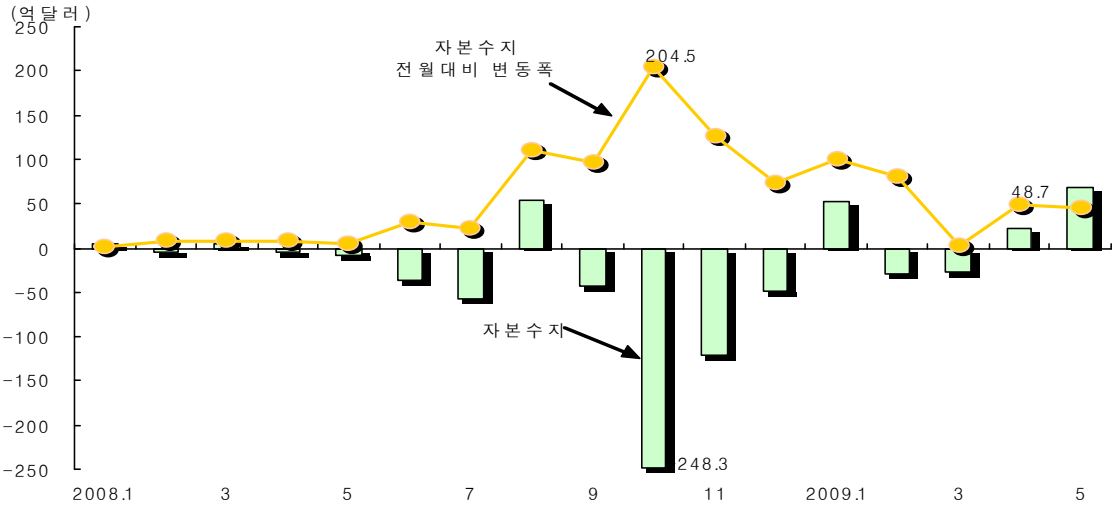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기준임.

○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폭이 확대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포함한 자본수지의 경우 전월대비 변동폭 확대
  - · 자본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을 살펴보면, 2000~2008년 8월까지 18.2억 달러에서 2008년 9월~2009년 5월까지의 변동폭은 86.6억 달러로 약 다섯 배 증가
  - ·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2008년에는 384.6억 달러 순유출 되었으나, 2009년 1~5월 현재 149.4억 달러 순유입으로 재전환
  - · 특히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 규모가 2008년 중 33.6조원에 달했으나 2009년 1~5월 현재, 9.5조원 순매수로 전환. 이에 따라 평균 환율도 2009년 1월 1,354.7원에서 5월 1255.6원으로 99.1원 하락

< 자본수지 및 전월 변동폭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수 추이 >

	2008년			2009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환율(원)	1,103.3	1,400.8	1,368.8	1,354.7	1,440.2	1,453.4	1,336.3	1,255.6
주식(억원)	-336,034	-19,066	-20,877	7,700	-8,618	12,768	42,008	41,355
채권(억원)	223,130	-8,068	-8,068	10,598	18,199	17,907	9,287	29,618

자료 : 금융감독원.

○ 환헤지의 쏠림 현상에 의해 환율 변동폭이 확대됨

- 수출입 기업들이 선물환 거래 확대를 통한 환헤지로 원화 가치 등락폭 심화
  -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일 때는 수출 기업들은 선물환 매도를 자제하는 반면, 수입 기업들은 선물환 매수를 증대시키므로 환율 상승을 가속화시킴
  - 2008년 3/4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 1,066원에서 2008년 4/4분기 평균 1,364원으로 급등할 때 선물환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를 보임

< 국내 기업 선물환 거래 추이 >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원/달러 분기평균 환율 (전분기대비)	956원 (36원)	1,017원 (61원)	1,066원 (49원)	1,364원 (298원)	1,418원 (54원)
매도 (억 달러)	518	410	297	142	152
매입 (억 달러)	176	168	220	182	111
순매도 (억 달러)	매도우위 342	매도우위 242	매도우위 77	매수우위 -40	매도우위 41

자료 : 한국은행, '외환시장 동향', 각호.

2) 구조적 원인

○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므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향이 한국의 신용 리스크에 크게 반영

- OECD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교역량 비중을 추정한 대외의존도를 보면, 한국은 2007년 90.4%로 높게 나타남

· 대외의존도가 낮은 일본 33.5%, 미국 29.3%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치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 86.8%보다 높음

·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2002년 69.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 85.1%, 2007년에는 90.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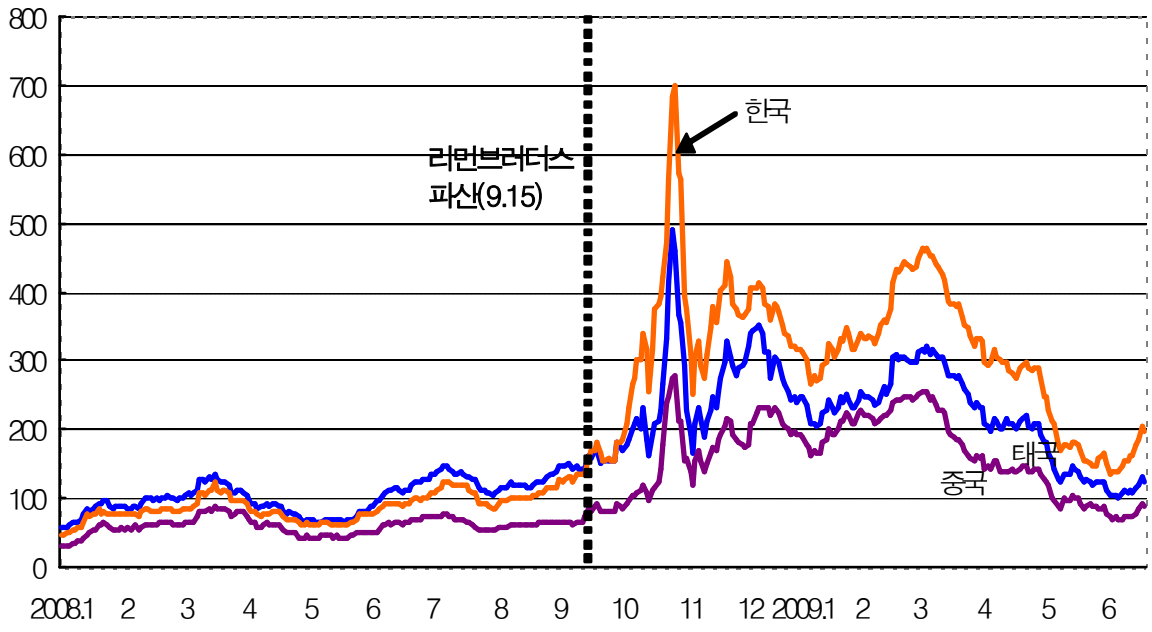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외 충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충격이 커지자 외화채권 5년물 CDS 프리미엄은 2008년 9월 15일 158bp에서 10월 27일 699bp로 상승

·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CDS 프리미엄은 5월말 166bp로 리먼 브라더스 직후 수준으로 급락

· 아울러, 정부 발행 외평채 가산금리도 2008년 10월 791bp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 5월말 현재 285bp로 하락

< 동아시아 주요국 CDS 프리미엄 추이 >



자료 : 국제금융센터.

○ 협소한 국내 외환시장으로 말미암아 달러 수요에 더욱 민감함

- BIS에 따르면 한국의 일일 외환거래량은 2007년 4월 기준 일평균 334억 달러[1]로 세계 거래액 3조 2,100억 달러의 0.8%에 그침
  - 국내 GDP 규모는 2007년 기준 세계 14위인데 반해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18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
  - 특히 외환거래량 규모는 2004년 15위에서 3단계 하락

- 특히 국내 은행간 외환거래 일평균 거래량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4/4분기 38.0억 달러까지 하락
  -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어 2009년 1/4분기 47.6억 달러 거래

< 전통적 외환거래 국가별 비중 추이 >

(%)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영국(1)	27.0	29.5	32.5	31.2	31.3	34.1
미국(2)	15.5	15.5	17.9	15.7	19.2	16.6
스위스(3)	6.1	5.5	4.2	4.4	3.3	6.1
일본(4)	11.2	10.2	6.9	9.1	8.3	6.0
싱가포르(5)	6.9	6.7	7.1	6.2	5.2	5.8
한국(18)	-	-	0.2	0.6	0.8	0.8

자료 : 한국은행,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 2007년 9월
주 : 괄호안은 국가별 차지하는 비중의 순위를 의미.

< 국내 은행간 외환거래 일평균 거래량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8 3/4	2008 4/4	2009 1/4
은행간 외환거래	63.6	82.5	78.1	81.5	38.0	47.6

자료 : 한국은행.

1) BIS 기준 일일 외환상품 거래규모는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현물환은 장내, 장외, 해외 거래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내 은행간 외환거래 일평균 거래량보다 큰 수치임.

○ 외환보유고 규모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에 완충 역할을 하기엔 미흡함

- 원/달러 환율이 리먼 사태 이후 상승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달러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가속화함
  · 2008년 3월말 2,642.5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는 12월말 2,012.2억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009년 5월말 2,267.7억 달러로 증대
  ·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8년말 8.6% 상승

- 국내 실물, 자본 거래가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 외환보유고도 증가
  · 2009년 1/4분기 외환보유고는 경상거래 기준 및 자본거래 기준에 비해서는 205~1,351억 달러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종합거래 기준으로 볼 때는 506~1,312억 달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준별 적정 외환보유고 추정 >

년도	외환보유고	적정 외환보유고							
		경상거래 기준		자본거래 기준		종합거래(경상+자본) 기준			
		3개월 수입금액		유동외채		3개월 수입금액 +유동외채 (1)		3개월 수입금액 유동외채+오차와 누락+(외국인포트폴리오 투자의1/3)의 합 (2)	
		적정 외환	여유분	적정외환	여유분	적정외환	여유분	적정외환	여유분
2005	**2,103.9**	707	+1,397	864	+1,240	1,571	+533	2,616	**-512**
2006	**2,389.6**	799	+1,591	1,316	+1,074	2,113	+277	3,280	**-890**
2007	**2,622.2**	1,006	+1,617	2,040	+582	3,046	**-423**	4,584	**-1,962**
2008	**2,012.2**	915	+1,097	1,940	+72	2,855	**-843**	3,705	**-1,693**
2009. 1/4	**2,063.4**	712	+1,351	1,858	+205	2,570	**-506**	3,375	**-1,312**

자료: 한국은행, Ecos.

주: 1)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는 경상거래 기준, 자본거래 기준 및 종합거래 기준에 맞추어 추정한 값임.
2) 여유분은 기준년도의 외환보유고에서 적정 외환보유고를 뺀 값임. 적색은 부족분임.
3) 유동외채=단기외채 + 1년 안에 만기 도래하는 장기외채.
4) 국제수지상의 오차 및 누락은 도피성 자본으로 대변.
5)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는 국제투자대조표상 외국인 증권투자(주식, 채권 포함)에 해당.

○ 달러의 무역 결제 통화 비중 확대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수출입업체 환리스크 고조

- 수출 경제 통화 비중 중 2008년 현재 미국 달러화가 81.6%, EU 유로화 7.6%, 일본 엔화 4.7%를 기록
  · 수입 결제 통화 비중에서는 2008년 현재 미국 달러화가 82.0%, EU 유로화 5.8%, 일본 엔화 9.7%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선호 현상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의 경우는, 수출에서 달러화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하반기 52.7%에서 2008년 하반기 49.8%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하락
  · 일본 엔화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하반기 39.4%로 달러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한국보다 낮음

< 국내 수출 결제통화 구성 추이 >

(%)

	미국 달러화	EU 유로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기타
2002년	85.0	5.5	5.4	0.4	0.002	3.7
2003년	83.6	6.5	5.6	0.4	0.002	3.9
2004년	82.3	7.3	5.6	0.4	0.002	4.3
2005년	79.1	8.4	5.6	0.5	0.003	6.4
2006년	79.6	8.8	5.0	0.6	0.002	6.0
2007년	77.2	9.6	4.8	0.7	0.003	7.7
2008년	81.6	7.6	4.7	0.8	0.005	5.2

< 국내 수입 결제통화 구성 추이 >

(%)

	미국 달러화	EU 유로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기타
2002년	78.2	5.4	13.2	1.4	0.002	1.8
2003년	76.7	5.9	14.5	1.4	0.003	1.4
2004년	77.2	5.5	14.6	1.4	0.003	1.2
2005년	79.3	5.4	12.6	1.6	0.003	1.1
2006년	80.9	5.2	11.2	1.7	0.004	1.0
2007년	80.7	5.6	10.8	1.8	0.008	1.0
2008년	82.0	5.8	9.7	1.6	0.011	0.8

자료 :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수출 결제통화 현황」, 2009년.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시사점) 2009년 하반기 환율은 최근의 월중 변동폭을 감안할 때, 달러당 1,100~1,4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6월 24일 현재 환율은 1,288원으로 최근 9개월 간 월중 변동폭 평균이 167.4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환율은 앞으로 최저 1,100원, 최고 1,400원대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글로벌 위기 이전만큼 줄어들지 않게 되면 기업의 환리스크가 증대될 것이고 경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환율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환리스크가 증대될 것임
  · 또한 정부가 경제 정책 운영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향후 과제)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외국인의 장기투자 유도, 수출입 결제 통화 다변화, 외화 장기조달 노력 확대, 외환보유고 확충, 통화스왑 유지 및 확대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첫째,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함
  ·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상품의 시장 다변화,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둘째,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제상 인세티브 제공과 같은 외국인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또한 급격한 외환 유출시 외국인의 단기 자본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토빈세와 같은 제동장치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출입 결제 다변화를 통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엔화 및 유로화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지역간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엔화, 위안화 뿐 아니라 원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넷째, 국내 은행들의 차입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위기 시 달러 이탈 방지
  · 운용자금 대비 1년 이상 장기차입금의 비중 기준을 높여 은행들이 외화를 장기적으로 차입하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함

- 다섯째, 향후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의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달러 유동성 문제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국내 실물, 자본 거래 규모 증대에 맞추어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임

- 여섯째, 달러화, 엔화 및 위안화 등과의 통화 스왑을 유지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히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통화 스왑을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결제 증가에 대비해야 함

현석원 연구위원(kyotohyun@hri.co.kr, 3669-4024)
조호정 연구원(chjss@hri.co.kr, 3669-4047)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2.8
EU	2.9	2.7	0.8	0.6	-0.2	-0.2	-1.6	-2.5	-4.2
일본	2.0	2.3	-0.7	1.4	-3.5	-2.5	-14.4	-14.2	-6.2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6.7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4.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4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2009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19일	6월 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3.97	2.21	2.66	3.78	3.54	-0.24%p
	엔/달러	112.58	106.27	90.22	97.34	96.12	95.96	-0.165￥
	달러/유로	1.4722	1.5785	1.4125	1.3190	1.3935	1.3989	0.0054$
	다우존스지수	13,265	11,350	8,776	7,609	8,540	8,472	-68p
	닛케이지수	15,380	13,481	8,860	8,110	9,786	9,796	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5.90	3.41	3.94	4.17	4.12	-0.05%p
	원/달러	936.1	1,046.0	1,259.5	1,383.5	1,268.4	1,284.3	15.9원
	코스피지수	1,897.1	1,674.9	1,124.5	1,206.3	1,383.3	1,394.5	11.2p

주 : 6월 26일 해외 지표는 전일(6월 25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19일	6월 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5.97	140.03	44.61	49.65	69.73	69.81	0.08$
	Dubai	89.30	136.16	36.45	46.80	71.36	69.07	-2.29$
CRB선물지수		358.71	462.74	229.54	220.40	252.79	253.38	0.5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